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성경은 인간이 가는 길에 대해 오직 '구원'과 '멸망'이라는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네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도들이 제일 처음 오고 걷게 되는 구원의 길은 '변화의 길'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전, 각자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간다. 바울 역시 유대주의 율법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살았고, 그것은 회교회를 향한 위험과 폭발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행 9:1~2).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진정으로 변화의 길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교제의 길'을 걷게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염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들과 교제를 나누셨고, 두 제자는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났다(눅 24:32~35). 두 제자에게 염마오로 가는 길은 참된 '교제의 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봉사의 길'을 걷게 된다(엡 4:11~12). 그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하고 치료해 주었던 선한 사바리아인의 길이다(눅 10:30~37). 또한 그 길은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지난 주 특별금요집회(4월12일) 주제발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네 가지 길'

'봉사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다(딤후 3:12).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서, 고난의 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마 16:22). 주께서는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딤후 2:12, 뱀진 5:12).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고난 없는 영광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다. '자녀니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인간이 어둠을 향해 걷든지, 그 열매는 그가 걸었던 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멸망의 길을 걷는 자는 멸망의 나라에,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걷든지 그것은 선택의지이다.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와 영적 교제, 봉사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겸손의 길이요, 작은 자와 친한 자에게 배푸는 참된 수고의 길이다. 그러므로 봉사의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십자가와 낮아짐의 길이다(빌 2:6~8).

'봉사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다(딤후 3:12).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서, 고난의 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마 16:22). 주께서는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딤후 2:12, 뱀진 5:12).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고난 없는 영광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다. '자녀니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인간이 어둠을 향해 걷든지, 그 열매는 그가 걸었던 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멸망의 길을 걷는 자는 멸망의 나라에,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걷든지 그것은 선택의지이다.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와 영적 교제, 봉사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메시아의 사역(이사야 61:1-4)

메시아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안고 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온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으니 그 기대는 말씀에 나타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무릎을 연고하고 오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났고 고함으로 삼모라고 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 대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회상해서 설명하신다(눅 4:18~21). 메시아는 주지기 위하여 오셨을들.

메시아는 자신을 주님으로 삼한 자를 고치셨다(사 61:1)
예수님은 그를 잘 대접해 줄 만한 부자나 영예로운 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마음의 상한 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리새를 거쳐 사람들에게 고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주종하기 보충하셨다(뱀 27, 8). 이것은 부요한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다고(롬 8:3).
실제로 예수님은 때를 만난 세리·여부·장녀·거지·병자들을 만났다. 예수님은 공동묘지로 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았고, 수사상의 바리새들은 여인을 찾았지만 그는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회개와 소망을 주시곤 다시 고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자신들의 죄안·힘을 인정했으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 그들에게는 상처와 상상이 있었다. 예수님은 상상이 없는 완전한 자에게는 찾아가지 않았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성령 받앗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막 10:45).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형제와 자기 것뿐 27부부터 성령의 표만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후라도 끊임없이 성령의 자제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물을 전하오며 죽으시기 전에는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주고 파자기 쏘아주었다. 메시아의 사역은 온전히 주지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가? 메시아는 예수 담기를 원한다면 하신 성령이 오시니 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메시아는 자신을 주님으로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사 61:1)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권위 없이 말씀하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눅 5:32). 주님은 이 땅에 아들이온다. 사탄, 빛의 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물을 전하오며 죽으시기 전에는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주고 파자기 쏘아주었다. 메시아의 사역은 온전히 주지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가? 메시아는 예수 담기를 원한다면 하신 성령이 오시니 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메시아는 자신을 주님으로 은혜의 해를 전하셨다(사 61:2-3).
오늘 우리의 감정에선 진정한 안락함이 섰다면, 더 이상 재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자.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간과 죄안과 자기 영의 영성이 된 나의 영혼을 불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길만이 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의 살 길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슬라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셨다. 슬픔을 버리고 기쁨을 찾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

예레 20:20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 죄안이란 동함할 자격은 충분하다. 복음은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다.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한다. 이 사역의 대열에 함께 발맞추어 나가라.
* 주 내 몸을 피 길로로 사셨으니 내 생령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 늘 놀이도 눈물로써 두 맛을 줄 일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달고 오묘한 그말씀 / 4월 12일 금요일집회

약속과 율법의 관계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와 변화
(에스라 7-10, 느헤미야 8-10)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용을 만든 조건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영토도, 왕도 없었다. 그들은 군사력도, 흥해를 가진이도 이적도 더 이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만이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 마저도 정복하지 못했다. 진실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이 율법이 왜곡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율법을 해석하고 사용함으로써 율법주의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다는 말이다(사 29:1). 이것을 좀더 쉽게 살펴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쁨으로 지켰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지켰었다. 그런데 포로귀환 후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의 구분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 자체를 강조하고 강요함으로써,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이것은 왜 심각한 일인가? 종교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왜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율법준수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율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대신하게 되었다기 때문이다. 이들은 율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형식을 지키는 어리석은 행위로 전락시켰다(사 7:23). 그리고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평가판하는 교만한 자리에게서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율법주의. 그런 까닭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으로 되돌아오라고 외쳐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을 철저히 하실 때, 성경은 만민이 기뻐하는 집이라야 진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총을 베푸신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사랑이 율법준수를 자신을 의탁하고 여기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마태 13:12).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율법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예배를 나눈다는 것이 부어하는 시간으로 삼지는 않는가(예배에 참석해서 좋았다든가, 예배 분위기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등)? 기억하라! 나보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일!

Lost Ones

(Ephesians 2:11-13)

Therefore remember, ...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Today's Bible passage begins with the words, "Therefore remember". We've got to remember that before Christ Jesus was as Gentiles were lost. Recently the universal church has lost the Word of God. They preach and educate their congregations with all kinds of subjects that aren't in the Bible, like Halloween, Harry Potter books, and whatever makes the headlines news. Too many preachers from their sermons around the popular, interesting, or pleasurable things of life. Without the Word of God, the Church loses its life. That's the result of sinfulness. How serious is it to know when we are lost? Jesus said,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We've got to seriously know when we get lost. Jesus came to this world because He wants to save the lost ones. What does the phrase "lost ones" really mean?

The lost ones are people without hope. Without Jesus Christ there is no hope. Paul reminds the Ephesians, "that formerly you, the Gentiles in the flesh, who are called "Uncircumcision" by the so-called "Circumcision," which is performed in the flesh by human hands—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vv. 11-12). Before Christ, the Ephesians had no hope. Every Gentile had no hope. What is this hope? This hope is saving hope, salvation hope. It is the hope that relates with the Savior. It is the hope from heaven, "because of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of which you previously heard in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Col. 1:5). This hope is so important. It is the hope of glory, "to who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 1:27).

What kind of hope do the lost ones lack? They don't have hope in the covenants of God's promise. They don't have assurance. But those who do have this hope have it as an anchor of the soul, "a hope both sure and steadfast and one which enters within the veil" (Heb. 6:19). Within the veil refers to in the presence of God. Believers have assurance because Jesus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assures us of our entrance into heaven as well. Christ has gone ahead into heaven, and as our hope/anchor, though out of sight, He holds us secure, especially in times of storm. This glorious hope is something the lost ones don't have.

The lost ones not only have no hope, but they are also "without God in the world" (v. 12). Indeed, they might have money, fame, and a worldly reputation, but without God it means absolutely nothing. Without God they're lost! Paul mentions these things to the Ephesian church so that they will remember their past history, which was without hope

and no God. He emphasizes these things now so that they don't forget and lose sight of the most valuable treasure of heaven. Generally speaking, non-believing Gentiles call upon the Lord more often than believers. Whenever non-believers experience sickness, financial hardship, accidents, or family problems, they usually seek the Lord. They cry out, "God I need you, I need help." But Christians, whenever they get family, money, or health problems, they tend to go away from God. They turn first to the technological or scientific advances of our day. Why is that? Jesus addressed this exact situation with His disciples. After emphasizing the need for personal faith for salvation, many of His disciples withdrew and were not walking with Him anymore. So Jesus said to the twelve. "You do not want to go away also, do you?"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words of eternal life" (Jn. 6:66-68). The other disciples left because they didn't have the Word of God.

The lost ones have no hope, no God in the world, and no eternal life. Without hope, without God, no one can have eternal life. Right? The Bible clearly says,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5:12). So, my dear friend, this life of yours is short. Perhaps you may live to be seventy, eighty, or even ninety years old. Modern medicine can only extend your earthly life for a little bit of time. But Christ, He will provide eternal life.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Jn. 5:24). Amen. Do you have this assurance of eternal life? The lost ones don't have eternal life. We are all sinners, every one of us. The result of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So, wherever a sinner comes to the cross, accept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will get saved. They are not going to be among the lost ones anymore. They will be found. They will find hope, fellowship with God, and receive eternal life.

Do you want to come to Jesus or go away? Why don't you want to come? If you are lost, you have no hope, no God, and no eternal life. If you come, all three of these things will be yours. It's so simple. Jesus only looks for the sinners. It's amazing but true. Jesus only looks for the lost ones. If you think your smart, great, and live for the riches of this world, you miss eternal life. But if you realize that you are a poor sinner and come to Jesus, Jesus will find you, and you will have it all! That's amazing grace! That's what we call the gospel, the good news. Amen. 

잃어버린 자들

(엡 2:11~13)

“그러므로 생각하라…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김성관 목사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의 보편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제들, 예를 들자면 헤리포트의 소설 책에 나오는 ‘할로윈’과 같은 것들을 전하고 교육합니다(할로윈이란 모든 성인을 기뻐하는 대추제일 전(前夜)를 의미함).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버텨기 사로 신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대중적이거나 흥미위주, 또는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때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 소망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11~12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산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구세주와 관계된 소망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5). 이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빛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개 안에 들어가나니”(골 6:10). 회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러한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들어가셨고, 더군다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통로가 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앞서 가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닥치는 순간에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시는 영혼의 빛이십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단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12절). 그들은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좋은 평판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

여 그들이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도록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가장 소중한 보화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는 자들보다도 더 자주 주님께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고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돈과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날의 혁신적인 기술과 과학적인 진보를 의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라나?”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로가 요리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짧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젊실 세나 팔십 세, 또는 구십 세 정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은 기적해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느니라”(요 5:24). 아멘,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 6:23).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십자가로 나아올 때마다, 믿음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가운데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구주께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죄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뜻밖의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오직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분명히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자신이 연한 죄인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오면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실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

문 연 석 (집사, 6교구 스리랑카 단기선교대원)

우리는 복음에 빛난 자요 선교와 사랑을 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먼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한 뜻'이었습니다. 교회의 2002년 천 명의 단기 선교사 파송 계획에 따라, 우리 6교구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을 가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스리랑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서로가 '어느 누군가의 의견이다...' 했으나 어느 누구의 의견도 아니었고, 이는 정녕 스리랑카에서 죽어 가는 영혼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방학이나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대원들 중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청년의 지혜를 좇지 말자는 각오와 열심으로 의전부 스리랑카 집회에 참석하여 스리랑카 친구들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문화를 체험하며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부 풍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어린이 색칠공부를 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림책을 만들고, 글 없는 책과 해설문구도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관할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가슴에 스리랑카를 품고 가져. 그곳의 형제 자매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자' 우리는 그곳에 가서 IMF전에 귀국한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마음 문을 다시 기경할 것입니다. 노방전도와 축복 전도, LAMP 훈련, 정담

련과 더불어, '어디든지 복음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집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땅이 복음으로 가득한 땅이 되도록
2.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의 순전한 만남을 위하여
3. 모든 대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리랑카를 품고 기도하도록
4.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진한다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5. 선교를 마치는 모든 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신을 부린다고 서로를 용납하며 존중하도록
6. 오가는 여정이 무사하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 ②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②-은혜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고 자기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은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를 통하여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직후 아담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창 3:15), 그후 이것은 구약하와 속장들을 통해 재현되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이 은혜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데, 범죄한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혜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이행은 그리스도께서 보증(保證)해 주신다. 그리고 인간은 다만 은혜언약의 사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언약에서의 조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인간의 하나님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창 17:7; 롬 3:33).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은혜언약은 인간의 회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로운 언약이고,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된 언약이며(엡 1:3-5; 요 19:30; 요 16:7,8), 시간이 흘러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창 17:9; 삼하 23:5),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언약이며,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언약이고(엡 2:8), 계약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효리로 성립되는 편무계약(히 6:17)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은혜언약에서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재(介在)하여 회화를 간청하고 도모케 하도록 촉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이 지불해야 할 죄책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완성시킨 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는, 이렇게 다함없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2002 단기선교 1차 팀 파송 일정

드디어 다음주부터 1차 충현단기선교팀이 파송된다. CMTC와 LMTC를 통해 선교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망글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 복음을 들고 나간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써 단기선교팀의 파송 일정을 기억하고 기도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나 라	기 간	팀(원인)	팀 장
스리랑카	4.29~5.10	6교구(12명)	엄필성 집로
우크라이나	5. 3.-5.14	12교구(12명)	여국진 목사
몽골	5.20.-5.29	11교구(10명)	이종철 목사
몽골	5.14.-5.24	17교구(12명)	오진국 집로
키르기스스탄	5.21.-6. 4	2교구(12명)	한승국 집로
우즈베키스탄	5.21.-5.29	16교구(12명)	김영길 집로
우즈베키스탄	6. 4.-6.17	5교구(10명)	이종섭 집로

*참고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가능

2002 충현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①

단기선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화나 연극에는 주연과 조연이 등장한다. 한 작품에서 이들은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나님이 감독하고 예수님이 제작하시며 성령님이 연출하시는 '선교'라는 영화에서도 주연과 조연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주연과 조연은 누구일까? 이 작품의 내용이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전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연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독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 된다. 아론이 흠 마리의 양을 놓아 두고 '질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제작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단기선교의 주연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나라이고 민족이며 종족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작품의 조연으로서 이 작품에 동참함으로써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연은 '주연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주연의 눈높이'에 조연인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지난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 이 영화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많은 충현의 배우들이 자신이 주연인 조연인지 분명히 구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연에게 필요한 것과는 상관없이 조연인 우리가 할 것은 특기와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색하게 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악함을 '미리 아시고' 이를 만지시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단기선교를 나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역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좋은 공간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우리는 조연으로서 '성경'이라는 대본을 숙지하고, 그 대본 안에서 성령님의 연출에 따라 주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연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 주연이었을 때, 우리의 눈높이가 다 가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사라져간 수 많은 조연들의 피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 시간 '현진인들을 대하는 마음 및 태도'

성정하게 만드신 하나님

최인 영 (청년1부, 73동기)



성정이란 되어진 결과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엄격히 있는 결과보다는 현재의 모습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모든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장은 나와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보면 성장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성장의 관심과 주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관심은 다르다. 당연히 이럴 때 나의 내면에서는 심한 갈등이 있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담감이 생긴다. 부담감이란 나의 가능성에 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올 때 느끼는 심정인 것 같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의도하신다면 벌써 우리 성장 가운데 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기억난다. 어떤 기도에도 대해서 주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럴 때를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지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사시 배수의 진을 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뒤에 물이 있어서 후퇴를 하면 물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성장은 뒤에 피할 길을 내놓고 서 나가는 게 아니다. 성도는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성장한다.

스스로 감히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말씀을 통한 교제 가운데서 나와 주님과과의 관계가 그분의 주관 아래 항상 있기를 매일 주님 앞에서 결단할 따름이다. 성장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은혜가 충만했던 어느 주일날

박은 진 (한림루아 찬양대, 청년2부)



몇 주 전 주일 찬양대의 오후 연습 중 '우리 죄를 눈같이 회개 하시고는 기역도 안 하시며'라는 찬양을 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기역도 안 하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이 찬양을 웅얼거리며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바다가 으르며 불빛을 내던 막대기가 저를 가리키자 저의 모든 손등에 십자가의 형상이 불꽃으로 지저저서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지막으로 한탄만 기회를 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하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바다에 얼드러 얼굴이 온통 흙범벅이 되도록 울면서 왜 진작에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는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절망하며 애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누군가 저를 앞으로 불러내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어, 죽음의 지옥문에 갈 저를 다시 살려 주신 것이니까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잠이 깨어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여 꿈같지 않았지만 그게 꿈이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도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해 있다가 당장 주님이 오시면 무슨 뚱으로 그분울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꿈으로나마 그 애통함과 절박함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준비하고 모든 죄를 시시각각 주님께 고하여 깨끗하게 용서받읍시다. 언제 오실지 모를 우리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반기기 맞을 수 있게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좋을 만큼요.

나, 너 그리고 우리 더불어 가는 길

이유진 (목사, 청년1부 지도)

예수의 헌신과 사랑

위의 제목은 지난 4일~5일에 춘천기도원에서 있었던 청년1부 1막 수련회의 주제이다. 이번 수련회의 전체 흐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는 과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배우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는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결혼을 하기 를 마음 속으로 소원하였다.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공동체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창 1:1) 그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다(창 1:16-28). 그리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돕는 배필을 창조하여 아담과 가족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창 2:18-25).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여자(하와)로 인해 깨어지지 둘 사이도 깨어졌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서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아담의 의식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깨어진 가족 구조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어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창 4:1-9). 그 후로 모든 가정은 평안과 화목의 모습보다는 다툼과 시기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그러진 모습이 잠겨되어 있거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정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가족관계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다.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 한 개인의 인격 형성의 토대가 놓이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의 가족은 아내를 남편에게 주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훈계하여 하는 것이다(엡 5:21-6:4).

강의를 듣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 사회 초년생의 고백

한미혜 (청년1부, 76동기)

대학부 시절에는 하나님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 생활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대학부 때 굳게 먹었던 나의 믿음은 온데 간데 없고, 나를 이렇게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회 생활이 힘든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그런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고 성경공부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을 자신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경을 읽을 맘을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소홀히 했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도를 다스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잠시 잊더라도 주님은 저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아무리 제가 못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부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나 저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저를 실속케 했던 지난 일들이 지금은 약이 되어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당방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언

17교구 7지역 남성구역 / 지역장 김연근 집사 / 구역장 안덕호 집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경배하기 위해 분당의 한 작은 산에 올라 예배하기로 했다. 7지역 남성 구역원들은 산에 오르는 도중에도 유대의 역사와 기독교 방송의 설교,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말씀이 생활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구역장이 본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는 열심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독특했던 것은 외을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안 주기로 했던 것이다.

주로 나는 말씀은 '칭찬 받을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세례요한은 당대에서 최고의 인가를 구가하던 사람이었다. 한 때는 예수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예수에게 세례까지 준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예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을 높이며 예수님께 대해 불만 가득한 말을 했지만 세례요한의 대답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였다.

구역원들은 서로에게 질문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 구역원은 작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습관이 되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우리를 스스로 영광 받으라고 가르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다. 한 구역원은 성가대를 하는데 자기가 선해서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성가대를 못할 정도로 아프고 나서 회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주일은 주님께 있으며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한다고 고백했다. 회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려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냐며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고 권하는 구역원도 있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례요한처럼 특별한 사람만 그럴 법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권오섭 기자)

제 15대 안수집사 45명, 제 43대 권사 후보 80명 피택

개강예배, 4월 27일(토) 오후 3시 베다니홀

지난주일 4부예배 후에 마련된 공동의회에서 45명의 안수집사가 피택되었고, 80명의 권사후보가 선출되었다. 이들은 4월 27일(토),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26주간 동안 교육을 받고 당회가 실시하는 고사를 치루어야 한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므로 이들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안수집사피택자
(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태식 6 89-18 신대금 15 84-1239

정영택 11 86-480 열명자 3 89-723

박종용 14 79-159 오영나 3 84-630

염연수 10 546 오영준 10 87-77

권사후보자

(가나다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백 보 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왔으며 지금은 논현동의 총현교회 집사님 댁에 거주 중입니다. 신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총현전 전도주일에 목사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설교를 하셔서 새로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가족부 주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 되어 점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착하게만 살면 죽은 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매일 죄를 짓는 것,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다음주일 전송

539장 이름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가는 1834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Edward Mott, 1797~1874)목사에게 의하여 작사되었으며 1863년에 W. 브래드베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98)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1834년 어느 날 아침, 그가 운양하는 캐비넷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문득 "굳건한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나 서니 다른 모든 터는 함몰하는 모래니"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메웠다. 밑터에 나간 그는 열매에서 일하는 그 소란 속에서 이 찬송시를 썼고 그 말씀이 이 찬송의 후렴이 되었다. 그는 후렴뿐만 아니라 4절 가사 모두를 그 날에 완성하였다.

세상 풍파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큰 위안을 제공하는 찬송이다.

1절 나의 소망은 예수의 보혈과 의(義) 외에 다른 아무 것에도 기쁨을 두지 않겠네, 나 감히 거울 감미로운 기쁨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네

2절 어둠이 사라하는 주님의 얼굴 가릴 때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나 의지하나니 거센 폭파 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내 빛 불꽃이다

3절 주의 명세, 주의 성의, 주의 보혈, 몸 속으로 잠기는 나를 불꽃이고 내 영혼 주위 모든 것 무너질 때 나의 소망이요, 지주사라

4절 나로 소외 물러나 주가 오실 때 이, 그때 주 안에서 발견되 하소서 주의 의(義)로만 단단히 하고 보좌를 놓지 서리이다

첫째 단과 둘째 단은 말씀에 새기며 부름처럼 흐르듯이 부르고, 셋째 단과 넷째 단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고 강하게 부른다. (한양회원)

호산나와 십자가

박인기 (목사, 에바다부 지도)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며 소리쳐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요란한 환영의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 인간적으로 가장 환희를 느낄만한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만대의 순간이 주님 앞에 펼쳐졌다. 유다의 배신과 일사천리로 이어진 산헤드린 재판 후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눈 앞에 둔 죄인의 몸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며칠 전의 그 환호는 다 어디로 가고 원망과 비난의 눈동자들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다. 빌라도도 예수의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오히려 변호사 같은 유대성 전문가를 단겼으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답답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단식같은 질문을 던졌다. '진리가 무엇인가? 정치색이 짙게 배인 빌라도의 심문은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으려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반응이다.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의 환호성에도, 사형집행이 내리지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다. 정말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을까?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환호하는 무리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었다. 그 대답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의 찬사와 비난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감추진 비밀과 놀라운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다 말씀해 주셨다.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청한이나 박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청찬받기도 우쭐해 할 것도 없고 비난받는다 그 화를 내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자신 그 길을 따랐기 때문 뿐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초청하는 것

이삼열 (전도사, 사랑부 부지도)

오늘이 장래인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 아무런 인위적인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모습은 교만한 비장예인의 마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한 사랑부 학생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기도드리러 가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의 기도드리러 가요"

보통 비장예인인 우리들은 기도제목목을 말하려면 자기의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기에 바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러 간다는 사랑부 학생의 대답은, 그저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런 만큼 우리 사랑부는 감사하는 사랑부이다. 사랑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령충만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천국의 귀한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사랑부 학생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주 낮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그러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나누어 줄 수 있다. 무엇을 나누어 줄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사랑부에서는 장래인 초대천도잔치를 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순간이다. 결코 우리가 그를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그를 부르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죄악에 물든 영혼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금방 순수해지는 우리 사랑부학생들은 오늘도 그렇게 새로 출생한 한 영혼을 맞으며,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서로 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하며 말한다.

민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성장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요셉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창 48:7).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어느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의 단이 저의 단에게 절을 하되(7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되(9절).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악한 인간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가 무엇인 그 꿈의 계시가 어떻게 되나 보자"(20절). 우리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은 20개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28).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결국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시어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분노와 원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결코 중단이 그만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권형기 목사)

아이들 마음에 그려지는 예수님

이명희 (집사, 유아부 교사)



주일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 한 명, 두 명, 얼마 아바의 손을 잡고 찬양 연습을 위해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는 어린 유아부 친구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하얀 도화지와 같은 우리 어린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의사이신 예수님? 기적자를 일으키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유아부의 많은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르게 그려져 저들의 일생에 참 예수님의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유아부를 모르는 4-5살의 많은 어린이들을 4월 28일 새친구 초청잔치에 초청합니다. 교육관 212호실에서 9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